



기장 높다. 정맥성 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증가는 임신과 관련된 경우에 년간 여성 100,000명당 60건으로 예상되는 위험성보다 낮았다. 건 중 1~2%에 해당하는 정맥성 혈전색전증은 치명적이었다.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저농도의 에스트로겐(에티닐에스트리디올<50mcg) 경구피임제 사용자에서 정맥성 혈전색전증의 발현율은 년간 여성 100,000명당 20~40례이었다.

11) 경구피임제를 중단해야 할 때 임신으로 인한 위험이 경구피임제 투여로 인한 위험의 2배 이상인 경우 경구피임제를 중단해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고려한다.

12) 다른 경구용 피임제와 같이 이 약은 HV/감염(에이즈) 및 다른 성병의 예방 기능은 없다.

13) 심한 위장관에 질환이 있는 경우, 흡수가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14)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 함유 제제가 드문 경우 혈장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크게 증가시켜 체중(이자)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15)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여성이나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의 투약을 중지한다.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동안 우울증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관리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 피임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16) 설사 및 / 또는 구토는 흐른 흡수 감소로 혈증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17) 경구피임제의 투여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시력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망막혈관혈전증이 보고되었다. 만일 시각 변화, 안구돌출증 또는 복시(겹보임), 유두부종(부기), 또는 망막혈관손상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18) 매우 드문 경우 간선증 및 지극히 드문 경우 간세포증은 경구용 피임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위험성은 경구용 피임제 복용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증의 파열(터짐)은 복강 내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경구피임제와 관련된 담즙울체(슬개즙경체) 병력이 있는 여성 또는 임신 동안 담즙울체(슬개즙경체)인 여성은 경구피임제 사용으로 담즙울체(슬개즙경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은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우신증(모니터링)되어야 하고, 담즙울체(슬개즙경체)가 재발할 경우 경구피임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경구피임제 사용에 있어서 간세포증 손상이 보고되었다. 약과 연관된 간세포증 손상을 조기 발견할 경우, 이 약의 투여 중단을 통해 간세포 독성의 증증(심한 증상)도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간세포증 손상이 진단되면, 환자는 경구피임제 사용을 중단하고 비호르몬성 피임제를 사용해야 하며 의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급성 또는 만성 간기능의 장애의 경우, 간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구피임제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19) 경구피임제를 복용한 여성에서 혈압상승이 보고되었다. 고혈압, 고혈압의 병력, 또는 고혈압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피임법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에게 경구피임제를 사용할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이 권고되며, 유의하게 혈압이 상승하면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고혈압 치료로 정상 혈압에 도달한다면 복합경구피임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0) 편두통이 발현(드러남, 드러나 보임) 또는 악화되거나 재발적, 지속적, 또는 증증(심한 증상)의 두통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면 경구피임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경구피임제 사용자 중 편두통(특히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이 있는 경우 노출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1) 유전성 및 후천성 혈관부종(부기)이 있는 여성들에게 외인성 에스트로겐은 혈관부종(부기)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22) 이 약은 가임(임신 가능성 있는)여성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었다. 이 약은 초경 전 여성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23) 이 약은 폐경 후 여성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24) C형 간염 : 옴비타스비르 / 파리타프레비르 / 리토나비르복합제로 수행한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임상연구에서, ALT 수치 상승이 정상최고치(ULN) 대비 5배 이상 나오는 빈도가 복합경구피임제와 같은 에티닐에스트리디올 함유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에게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약은 옴비타스비르 / 파리타프레비르 / 리토나비르복합제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및 6. 상호작용참조). 이 약은 위 복합요법의 종료 후 약 2주가 경과하였을 때 재복용할 수 있다. 글리카프레비르/파브렌타스비르 복합제를 포함하는 C형 간염 바이러스제와 에티닐에스트리디올 함유 복합경구피임제 복용 투여시 ALT 상승이 관찰되었다.

25) 이 약은 내당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당뇨병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 시 주의 깊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26) 조절되지 않는 이상기질증환자는 대체 피임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이상 기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7) 이 약에 포함된 에스트로겐 성분은 갑상선-결합 글로불린(thyroid-binding globulin), 성호르몬-결합 글로불린(sex hormone-binding globulin) 및 코르티솔-결합 글로불린(cortisol-binding globulin)의 혈증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 또는 코르티솔 대체요법 시 용량 증기가 필요할 수 있다.

28) 이 약 사용 시 기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성 기미를 경험했던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다. 기미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이 약 복용 중 태양광 또는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한다.

## 6. 상호작용

- 1) 바르비탈계 약물, 항전간질(카르베시클론,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히단토인, 프리미돈), 리파부틴, 리팜피신, 항생물질(암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글리세오풀빈), 루피나미드, 아프레피탄트, 보센탄, 에파비렌즈, 페비메이트, 오스카르비제핀, 약용단, 원하제와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월경주기 변화, 피고성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경구피임제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피임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는 기간 중 및 투여 중단 후 28일 까지 치단피임법을 이 약과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 2) 경구피임제는 내당력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또는 허당강화제의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3) β-차단제(메토프롤론 등), 벤조디아제핀과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이 약물의 작용이 강화되고 연장될 수 있다.
- 4)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간 배설 감소로 혈장 사이클로스포린 농도, 크레이atin혈증 및 트란스아민 나제 농도 등의 증기가 나타날 수 있다.
- 5) 리토나비르, 세인트존스풀(St. John's wort, Hypericum perforatum)과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로 피임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 6) 모다피닐과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치료기간 및 치료중지 이후 주기동안 혼소유도로 피임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 7) 플루니리진과 병용(함께 사용)투여시 유루증(유금분비과다)이 나타날 수 있다.
- 8) 에티닐에스트리디올 함유제제 및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혈증 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성분과 병용(함께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약 복용에 추가로 비호르몬적인 보조의 피임 방법(콘돔 및 실정제)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성분을 장기 사용하는 경우, 경구용 복합피임약을 1차 피임방법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9)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혈증 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의 투여 중단 후, 최소한 7일간은 비호르몬적인 보조의 피임 방법이 권장된다. 간 미소체효소를 유도하여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혈증 농도 감소를 초래하는 성분의 투여 중단 후에는, 더 오랜기간 동안의 보조방법이 권장된다. 용량, 투여기간 및 유도 물질의 제거율에 따라서, 혼소 유도가 원전히 기라앉을 때까지 및 주기 소요될 수 있다.
- 10) 위장관 전이시간(Gastrointestinal transit time)을 감소시키는 성분과 에스트로겐의 장기순환을 감소시키는 항생제(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는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혈증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 11)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을 함유한 복합경구피임제와 아토르바스타틴 또는 로수버스티틴을 병용 투여하면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AUC가 약 20~25% 증가한다. 위장관 벽에서 유황화(sulfation)에 대한 경쟁적 저해제(억제제)인 이스코르빅산(비타민C)과 파리세이트 및 간 효소 P450 3A4를 저해하는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케토코나졸, 자몽주스, 인디나비아, 플록코나졸, 트롤린도마이신은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혈증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트롤린도마이신은 경구용 피임제와 병용(함께 사용)투여 할 경우, 간내담즙울체(슬개즙경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12) 헥로민 피임약과의 병용투여시 다수의 HV 프로테이제 저해제(감소)[예: 네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디루나비르/리토나비르, (포스)암프레나비르/리토나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티프라나비르/리토나비르] 또는 증가[예: 인디나비르, 인디나비르/리토나비르] 또는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억제제(NRRT, 감소[예: 네비라핀], 또는 증가[예: 에트라비린]) 또는 그간 양 바이러스 프로테이제 저해제(감소[예: 보시프레비르, 멜라프레비르])가 에스트로겐 및/또는 프로게스틴의 혈증 농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13) 이 약과 같은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복합제는 다른 약물들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혈증 및 조직 내 농도가 증가[예: 씨아클로스포린, 프레드니솔론, 치오플린, 티자나린, 보리코나졸]하거나 감소[예: 리모트리진, 아세트아미노펜, 모로핀, 살리실산, 테마제팜]할 수 있다. 라모트리진 혈증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면 별도 조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라모트리진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대체요법으로 치료 중인 여성은 복합경구피임제 사용으로 갑상선-결합 글로불린(thyroid-binding globulin) 및 코르티솔-결합 글로불린(cortisol-binding globulin)의 혈증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호르몬 또는 코르티솔 용량 증기/필요할 수 있다.
- 14) 약물상호작용의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용(함께 사용)투여하는 약물의 치료내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 15) 옴비타스비르 / 파리타프레비르 / 리토나비르 복합제로 수행한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임상연구에서, ALT 수치 상승이 정상최고치(ULN) 대비 5배 이상 나오는 빈도가 복합경구피임제와 같은 에티닐에스트리디올 함유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에게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약은 옴비타스비르 / 파리타프레비르 / 리토나비르 복합제 투여

시작하기 전에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및 5. 일반적 주의 참조). 이 약은 위 복합요법의 종료 후 약 2주가 경과하였을 때 재복용할 수 있다. 글리카프레비르/파브렌타스비르 복합제를 포함하는 C형 간염 바이러스제와 에티닐에스트리디올 함유 복합경구피임제 복용 투여시 ALT 상승이 관찰되었다.

16) 담즙산 제거제(oleic acid sequestrant)인 콜레세브이람과 복합경구피임제를 함께 투여하면 에티닐에스트리디올의 AUC가 유의하게 감소한다. 복합경구피임제의 에스트로겐 성분의 혈증 농도가 감소하면 잠재적으로 피임 효과 감소 또는 비생리기 자궁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복합경구피임제와 콜레세브이람 복용 투여 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투여한다.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기형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으나 특히 대량 복용시 태아(3개월부터)의 위험 가능성을 원전히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투여 전에 임신은 제외되어야 하며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한다. 광범위 역학시험에서 임신 전 경구용 피임제를 사용한 여성으로부터 태아(난아이에게 출산) 기형의 위험성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임신검사로서 위축 출혈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경구피임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신 중 절박 유산 또는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기 위해 복합경구피임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이 약 성분 중 일부가 모유 중에 이행되어 영아에게 활동 및 유방학대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고 모유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4) 임신중 혈당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에스트로겐 함유 경구피임제 투여시 혈당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투여를 즉시 중지한다.

## 8. 과량투여

성인 및 소아에서, 경구용 피임제의 과량투여 시 구역, 구토, 가슴조림, 어지럼증, 복통(배아픔), 출음 /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에서는 소스성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과량투여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 및 추가 치료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

## 9.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경구피임제는 다음과 같이 내분비 및 간기능 시험과 혈액 내용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프로트롬빈 및 응고인자 VII, VIII, IX, X의 증가, 향트롬빈 III 감소,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인한 혈소판 응집성의 증가

2) 단백결합형 요오드(PBI), 칼륨 분석 또는 방사선면역분석법에 의한 T<sub>4</sub> 농도 및 방사선 면역분석법에 의한 T<sub>3</sub> 농도 측정에 따르면, 갑상선 결합 글로불린(TBG) 증가에 의해 순환하는 총 갑상선 호르몬의 증가(T<sub>3</sub> 수치 흡수는 감소하는 데, 이것은 TBG의 증상을 의미하며 우리 T<sub>4</sub> 및 T<sub>3</sub>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3) 혈청 중 다른 결합 단백질 증가

4) 글로불린결합 성스테로이드의 증가로 인한 혈액 중의 순환하는 성스테로이드 및 코르티코이드 총량의 증가(비결합 또는 활성 농도에는 변화 없음)

5) 혈청 트리글리세리드 증가

6) 내당력 감소

7) 혈청 엽산염 농도 감소

8) 메티리폰 시험에 대한 반응성 감소

##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어 꼭 닫아 보관한다.

## 11. 기타

외국에서 에스토넨 또는 데소케스테렐을 함유하는 경구피임제가 다른 피임제에 비해 정맥성 혈전색전증의 유발빈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 외국 역학조사 결과, 정맥혈전증 위험도가 경구피임제를 복용하고 있는 여성의 복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3.25~4.0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정맥혈전증 위험도는 경구피임제 복용 시작의 처음 1년간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다. 외국에서 경구피임제의 복용에 의하여 전신성 홍반(붉은 반점)성 루푸스의 악화, 아나필락시양증상, 용혈성(적혈구 파괴성) 요독증 증후군(HUS)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 [포장단위] 21정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C)보관

◆ 제품문의처 : 1666-9979

사용설명서 개정연월일 : 2022.06.10

\* 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신시오.

\*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알레르기증상(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용기에 넣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 구입 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색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입한 약국을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 이 제품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구입처나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제품문의처로 문의하십시오.

\* 이 사용설명서 개정연월일(2022년 06월 10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현대약품(주) 홈페이지

(<http://www.hyundaiapharm.co.kr>)나 제품문의처(☎ 1666-997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4-3330, 1644-6223)

[제조자] Laboratorios Leon Farma S.A

C/La Vallina s/n, Polígono Industrial Navatejera, Villaquilambre 24008, Leon, Spain (Made in Spain)

[제조의뢰자] Velvian Germany GmbH

Carl-Zeiss-Ring 9 85737 Ismaning, Germany

[수입자] 현대약품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전다리길 55

